



농수장산

11

주제 112(2023)
루계 제 411호 월간



표지: 사회주의농촌의 가을풍경

벼가을이 한창인 조국의 전야이다.

조선로동당의 농촌진흥의 구상에 따라 농업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생활환경이 날로 개선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무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

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14 ||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어

18 || 일신된 관개체계들이 은을 낸다

20 || 능률높은 농기계생산에 박차를

22 || 농장의 호주

23 ||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24 || 단합의 리념아래

대담

26 ||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로

28 || 수도의 거리에 펼쳐진 원림경관들

32 ||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수기

34 || 어머니처럼 한생을 살립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36 || 기체침탄실현의 개척자

고향소식

38 || 과일군을 찾아서

42 ||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44 || 조선봉건왕조 (1)

력사이야기

45 || 의암리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46 || 김두량과 조선화 《소몰이군》

민족의 향기

48 || 민족의 향취넘치는 연백농악무

조선의 명산

52 || 칠보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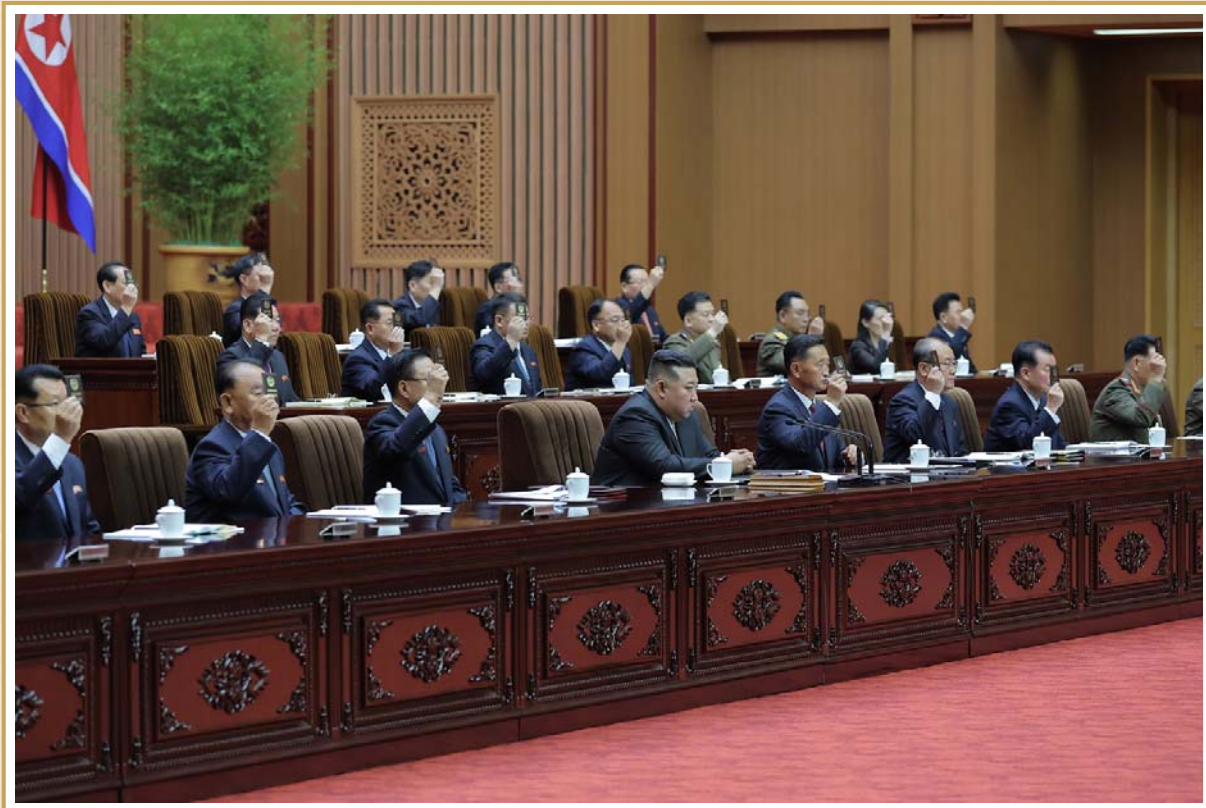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투쟁을 줄기찬 성공으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회의를 사

회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위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되다고 말하시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포된 이후 지난 1년간 공화국핵무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경제문화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괄목할 변화들은 국가핵무력정책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고 그는 강조하시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보충안에 반영되는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키는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회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가장 력사적인 결의권을 행사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전체 인민에게 송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로써 2023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무비한 국력의 줄기찬 강화를 위한 백승의 실천강령,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을 촉진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운석대위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들에 우리 당의 장애인권리보장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철저히 담보하며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는 장애인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서 나서는 법적요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등 해당 법초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김승두대의원, 허성철대의원, 박명선대의원, 신관봉대의원, 전승국대의원, 허성호대의원이 하였다.

토론자들은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관개법이 나라의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증산과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서와 공무원법이 국가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자질, 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로 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를 토의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대의원이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금융부문 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금융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결정이 일치가결되었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통국으로 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자각과 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 됩니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올해에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언제나 애국충성으로 화답해온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스런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총력기해나섬으로써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뚜렷한 장성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과 날마다 몰라보게 일떠서는 새 거리, 새 살림집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적인 변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

해줄수 있는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는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입니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세력들을 불가극복의 위협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 핵전쟁억제력은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다져지고 끊임없이 강화되어가고있습니다.

강력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이번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75년에 걸치는 존엄높은 자기의 주권활동사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의의깊고 사변적인 정치적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국가관리와 경제발전, 인민적시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의 채택과 함께 나라의 헌법에 새시대 우리 국력의 실상을 반영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으로 하여 본 회기는 공화국의 헌정사에 괄목할 폐지를 새긴 력사적인 회의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로 1년전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핵무력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달성되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자존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와 의지가 전체 인민의 신념으로 굳건한 국가, 실제로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것을 자주와 정의, 발전의 가장 귀중한 절대적힘으로 틀어쥔 정부와 인민만이 이러한 기적을 탄생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중대하고 의의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 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입니다.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패권열망과 팽창주의적환상실현에 광분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립증해주고있습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가증되어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앞에서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앉아있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이 극성스레 광고하는 알량한 《선의》와 화려한 유혹에 환상을 가지고 핵보유로선을 결단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리고 출발을 뻔 간고한 길에서 멈춰서거나 후퇴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전에 핵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것이며 적들의 횡포무도한 도전과 압박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가의 존위와 위력을 선양하고 세계의 정의를 선도하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강요했던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규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이므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홍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입니다.

랭전식사고방식에 쪼들대로 쪼든 미국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날 전략적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고 더욱 철저히 제압하고 관리하면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화국정부가 단순히 립박한 정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판단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행성에 핵무기가 출현하고 첫 핵참화가 일어난 때로부터 인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소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도 1950년의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된 핵공갈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두 무시하고 비핵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장장 수십년간 지속해 가증시켜왔으며 이로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막대한 장애와 엄중한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지어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운 비상국면에 직면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

와 함께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한데 대하여 응당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이 역사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현 단계의 투쟁강령실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잠시도 멈춤없이 추진시켜야 할 중대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중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의 우리 당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서 그에 립각하여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당중앙의 대외전략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넓고 전망성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을 더 잘 보장하고 나라의 중요경제사업들을 안정케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부문법들도 심의채택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한것은 귀중한 성과로 되지만 더우

기 중요한것은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전진비약이 이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으로 향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내세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투쟁은 오늘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건국 이래 류체를 찾아볼수 없는 국난이 겹쌓인 속에서도 과감한 계속전진의 기세로 쟁취한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는데 끊임 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나섭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 지역의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고 박력있게 하여 당과 국가가 결정한 경제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양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농업부문이 더욱 과감히 분기하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부단히 증대시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공화국 정부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통이 크게, 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책, 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반드시 결실을 안아와야 할 중요과업들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국격과 국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맞게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부문에서 뚜렷하고도 결정적인 개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결정한 국가 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나라의 교육구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진 교육을 줄수 있게 질적으로 개선하며 가장 인민적인 보건의제의 우월성이 발양되도록 전반적인 보건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발전상, 우리 인민의 애국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스런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국풍을 수립하며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창조방식,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을 한 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이를 위한 투쟁의 도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국가적인 재해방지사업에서 대단히 엄중한 결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것만 보아도 의연히 국가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 무질서, 무책임성, 무관심성을 비롯한 폐단들이 고

질적으로 내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줍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기관, 기업소, 공민들이 높은 정치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에 복종하며 나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억제하도록 통일적이며 강도높은 통제와 투쟁을 계속 드세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발휘되었던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고귀한 전통이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여 이것이 우리 시대는 물론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게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분야, 모든 단위가 국가의 근본리익, 전망적리익을 앞에 놓고 끊임 없이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비할바없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실지 남달리 높은 애국심, 애민정신을 체질화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나갈것을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이 믿고 선출한 최고대표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에 국가와 인민의 얼마나 크나큰 신임과 무게가 실려있는가를 항상 뼈저리게 자각하고 실지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인민을 량심으로, 신념으로, 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민의 진정한 대표이고 참된 대의원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우리 로동당의 손길아래 인민의 대표, 최고주권기관의 대표라는 영예와 존엄을 지닌것만큼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당, 자기 국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할 일념에 항상 충만되어있어야 하며

온넛과 혼심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세계만방에 국위와 국력, 국광을 유감없이 떨치고있는 오늘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충의지심을 다해 가장 열렬하게, 가장 견결하게, 가장 뜨겁게 받드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 참된 총복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보람인가를 모두다 다시금 심장속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3년을 마감지를 시각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앞에는 벽찬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올해의 마감까지 더 알찬 성과로써 떳떳이 마무리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나르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 물질기술적조건과 토대가 확고하며 핵무력건설에 관한 든든한 법적담보까지 마련한 현재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그 실천적성과의 여부는 여기 모인 대의원동지들과 모든 공민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노력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더없이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사명과 직책상임무를 충실히 다해나가리라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위상을 다시금 궁지로이 체감하게 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 * *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어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황해남도의 전야마다에서 능률높은 새형의 농기계들이 동음을 울리고 벌방지대, 산간지대 그 어디에서나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는 농촌문화주택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일떠서고있다.
 20여만정보의 논밭관개체계와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 강령호담수화공사,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어 농촌경리의 수리화 실현에서도 진일보가 이룩되었다.
 특히 가물피해를 심하게 받던 지역들을 위주로 6만여정보에 달하는 밭들의 관개체계가 일신되어 자연의 번덕을 이겨내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각지 농촌들에서 선진농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일고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사상초유의

고난속에서 농촌진흥을 다그쳐 사회주의농촌문명을 펼쳐놓는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다면 전변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농촌진흥의 새시대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수도 평양은 물론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가보아도 농장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떠나 오늘의 변혁을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실로 그러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농촌혁명, 농촌진흥을 더는 늦출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시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강령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와 중장기적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농업부문을 지원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주체111(2022)년 5 500대의 농기계를 생산하여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 보내주었다.



인 농촌발전전략,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킬데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들과 대책을 비롯하여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은 밤에도 계속된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모든 농촌들을 제발로 일떠서고 흥하는 진정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주시려고 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보강해 주기 위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 주시였으며 온 나라가 농촌을 지원하는것을 의무화하고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히 지원하도록 필요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군수공업부문이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업부문을 도와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는것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분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특히 사회주의농촌의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는 위대한 력사적전환점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들에 일군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으면서도 발전된것을 만들어 농촌에 보내줄데 대하여, 여러 가지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보고 우수한 기능을 창조적으로 더 보충하며 농기계를 다루어야 할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농기계생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주시였다.



주체112(2023)년에도 각지의 농기계공장들에서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보내졌으며 올해에는 금성트랙토르공장과 각 도들의 농기계공장들에서도 수많은 농기계들이 생산되어 농업생산에 이바지되었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중대사항으로 관심하신 그이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한 공군기지를 대규모온실농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주체108(2019)년 모래강풍속에서 몸소 련포온실농장부지를 확정해주신 그이께서는 그날로부터 농장건설에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으며 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련포온실농장을 수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생산기지로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었으며 지난해 5월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무조건 끝까지 결실로 이어지도록 완강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이의 로고와 심혈속에 짧은 기간에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새시대의 문명을 파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가 가슴뿌듯한 장관을 펼칠수 있었다.

련포온실농장을 농촌문명창조의 거점으로 일떠세워주신 그이께서는 농촌살림집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이 자리잡고있는 련포온실농장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주체111(2022)년 12월 촬영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제6차, 제7차전원회의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력적인 서한들에도 담겨져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시대적특성에 맞게 농촌건설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가 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뜨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이시다.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건설지휘력량이 조직되고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세멘트가 전진공급되었으며 세멘트생산기지들의 생산능력이 확장된것을 비롯하여 농촌건설준비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하는 변혁적실체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날에날마다 새집들이 소식으로 온 나라가 흥성이고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농장들에서 과학농사열풍이 일어나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의 농촌들은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곳곳에서 새집들이하는 농업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일신된 관개체계들이 은을 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국에서는 올해 계획된 20여만정보의 논밭관개체계와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 강령호담수화공사, 해안방조제영구화공사과제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 특히 가물피해를 심하게 받던 지역들을 위주로 6만여정보에 달하는 밭들의 관개체계가 일신되어 자연의 변덕을 이겨내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에 2만 4 000여km의 관개물길보수와 1만 2 000여개소의 지하수시설건설 및 능력확장, 1 500여개소의 관개시설건설 및 보수, 밭관개를 위한 2 400여km의 관늘이기공사가 결속되었으며 3 000여개소의 양수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그이께서는 주체114(2025)년까지의 관개건설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회의에서는 그 어떤 가물과 큰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나라의 관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던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 지배적고지로 정한데 맞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농사성과의 관건이 달려있는 관개체계의 완성을 주요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었다.

나라의 관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년차별로 정확히 세울데 대한 문제, 가물과 침수피해를 자주 받는 지역들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하며 중소하천들의 바닥파기와 제방보수, 해안방조제공사도 질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관개공사를 실속있게 추진하는

청천강-평남관개물길이 완공되어 열두삼천리밭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황주강등벌과 연탄군의 넓은 농경지에 관개수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자연르름식물길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중대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도 농촌진흥의 발전목표를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를 토의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제기하신 그이이시다.

당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개건설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전개되었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 관개건설전투지휘조와 추진조가 꾸려졌으며 중앙관개건설전투지휘조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관개시설을 복구정비하고 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선차적인 공사대상으로 지정된 물부족지들과 침수피해지들의 관수, 배수체계를 세우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이 선행되었다.

올해농사에서부터 실지 덕을 볼수 있게 밭관개를 위한 양수장건설과 관늘이기공사, 관개시설의 건설 및 보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것이다.

평안북도에서는 200여km구간의 관늘이기와 400여개소의 양수장건설을 보름 남짓한 기간에 결속하였다.

함경북도에서는 시공의 질을 개선할수 있는 선진적인 공법들을 탐구도입하여 수명과 안전성이 담보된 수백개소의 양수장들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증설하였다.

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난 4월까지 계획된 면적의 밭관개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어 대지에 활력을 부여주었다.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물길공사도 본격적으로 진척되었다.

평안남도에서는 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개물길정리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190여km의 중소하천바닥파기와 수백만㎡의 토량처리, 2 600여km의 관개물길보수, 제방보수를 위한 장석쌓기를 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과제였지만 건설자들은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황해북도에서 세림잠판, 통암잠판, 정봉잠판 등 미루벌물길의 불비한 개소들을 보수하고 함경남도에서 3 570여km에 달하는 물길을 정리한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들에서 계획된 관개물길 보수공사를 최단기간내에 결속하였다.

지하수시설건설과 능력확장, 배수시설보강공사도 힘있게 추진되었다.

평양시 사동구역, 평안남도 평원군 등 전국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분수식관수체계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새롭게 구축하거나 정비보강한 관개시설들이 정상운영되면서 올해농사에서부터 실지 그 덕을 보고있다.

특히 물부족지들과 침수피해지들에 대한 관개체계완비에 력량이 집중되어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만도 가물피해를 심하게 받던 수백정보의 밭에 관수대책이 세워져 은을 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영은
사진 조선중앙통신

능률높은 농기계생산에 박차를

-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 -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



굴지의 농기계생산기지인 금성트랙토르공장의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농촌들에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줄 일념 안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올해 트랙토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것과 함께 새형의 트랙토르를 계열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있다.

여기에서 공장의 기술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공장이 계획한 새형의 트랙토르들의 표준설계와 지구장비설계를 짧은 기일에 완성한데 이어 생산공정확립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적시에 해결해나가고있다. 그리고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결과 주물, 주강, 제관, 단조, 치차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생산능력이 장성강화되었으며 제품의 질적수준도 비할바없이 개선되었다.

한편 공장에서는 전반적생산공정들의 기술개진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필요한 자재 등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트랙토르생산계획을 일정대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소형벼수확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도 공장은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소형벼수확기의 계열생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운영시험을 충분히 진행하였다. 운영시험을 통하여 현실적조건에 맞게 설계를 보다 완성하는 한편 주행속도와 비절단속도와의 호상비례 등 소형벼수확기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들을 제때에 바로잡고 있다.

그리고 자체의 기술집단과 해당 과학연구단위와의 긴밀한 협동밑에 조국의 실정에 맞는 성능 높은 벼종합수확기와 모내는기계를 개발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나가고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곧 생산성파로 이어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각종 트랙토르, 벼종합수확기,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은 전국의 농장들에 보내여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농장의 호주



박영애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농장은 해마다 모든 영농공정에 따르는 도적인 생산경쟁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확농민들도 늘어나고있는 자랑 많은 농장이다. 지난해에는 다수확농민이 수백명이나 배출되었다.

이것은 농장경영인 박영애녀성의 고심과 완강한 전개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를 두고 농장원들은 《늘고민과 걱정이 많은 우리 경리》라고 부르고있다. 이 부름은 가정의 주부처럼 한개 농장의 크고작은 문제와 지역안의 전반사업을 떠맡아안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다.

사실 농업부문에 녀성일군들이 적지 않지만 박영애경리처럼 몸도 체소하고 키도 작은 일군은 드물다. 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물리설출 모르는 그의 정열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은 누구도 따를수 없다고 한다.

삼봉리 농장원들은 농장의 논과 밭들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바친 경리의 노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있다.

지력개선은 10여년전 박영애녀성이 경리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농장의 토양을 분석하는 과정에 그는 지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알곡소출을 높일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포전별, 필지별로 거름을 정보당 20~50t씩 내는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당시 농장의 형편에서 이만한량은 여간 힘에 부치는것이 아니였다. 거름원천은 물론 노력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풍요한 가을만을 안아오려는 박영애경리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말보다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그의 사업작풍은 많은 농장원들을 감동시켰고 이것은 곧 대중의 마음에 불을 지펴준 불씨가 되었다.

농산제9작업반장 김정호는 《그때 논밭에서 늘 살다싶이 하면서 한kg의 거름이라도 더 내려고, 한평의 땅이라도 더 걸구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박영애경리를 보며 농장원들은 스스로가 목표를 높이 세웠고 그날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현장을 뜨지 않았다.》라고 그 나날을 회고하였다.

전반적인 지력이 높아지는데 맞게 박영애경리는 선진영농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세웠다. 이 과정에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

계가 확립되고 모든 작업반들에 성형알모재배방법과 심층시비방법을 비롯한 앞선 영농방법들이 도입되어 큰 은을 내었다.

알곡소출이 높아지니 농장살림이 늘어나고 농장원들의 현물분배도 해마다 많아졌다.

그의 사업영역은 이만이 아니다.

농장원들의 생활조건보장과 삼봉리안의 탁아소와 유치원들, 교육과 보전은 물론 문화후생사업,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 등이 박영애경리가 관심해야 할 대상들이다. 이로 하여 그는 늘 고민과 걱정을 안고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것을 대하고 보살피고있다.

그가 경리로 사업한 15년간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었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수준도 현저히 높아졌다.

올해에 들어와서 그는 농장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농촌건설계획과 영농공정별계획을 보다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있다.

박영애경리는 《조선로동당이 펼친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에 따라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이 이룩되고있다. 머지않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된 우리 농장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박영애경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그 진수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데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독창성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세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우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힌 원리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에 종속되어 사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복종시키면서 사는 세계의 지배자이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자기의 의사대로 개척해나가는 존재이다. 세계의 변화발전법칙을 발견하고 인식리용하는 과정에 주위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복종시키면서 살며 발전해나가는 존재, 자기의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할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세계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 즉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힌 원리이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세계발전을 규제한다. 주위세계의 작용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이 세계를 개조발전시키기 위한 자기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절통제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의 운명이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는것만큼 주위세계의 조건과 환경, 객관적요인이 사람의 운명개척에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개조하는 대상이며 사회적관계나 물질문화적재부도 운명개척을 위한 활동과정에 사람이 만들어내고 리용하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하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철학적원리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운명의 주인은 누구이며 운명개척의 힘은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원리가 운명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간자신이라는것을 밝힌것이라면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운명개척의 힘이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밝힌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온갖 구속과 예측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또한 여기에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가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영

단합의 리념아래

(전호에서 계속)

그러나 삼원포에 도착하여 최창걸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고장 조직원들이 그가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것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창걸은 고산자공청지부의 사업을 지도하다가 국민부우파놈들에게 체포되어 종적을 감추었다는것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삼원포공청지부의 박가성을 가진 청년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하였다. 그는 국민부테로분자들이 최창걸을 금천현 강가점에 유인해다가 학살하고는 공산당밀정이기 때문에 처단했다는 여론을 퍼뜨렸다고 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최창걸이 해룡-청원사이를 왔다 갔다하면서 활동하다가 피살되었다고도 하였다.

이렇든저렇든 최창걸이 이 세상사람이 아니라 는것만은 틀림없는것같았다.

나는 너무나 분해서 말도 할수 없었고 눈물도 흘릴수 없었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변함없이 열에 끓고 정에 넘치던 《ㄷ.ㄷ》의 건아가 어찌편 그렇게도 속절없이 우리걸을 떠날수 있던 말인가! 그것은 안도-무송현경의 이름없는 한 룡선에서 맛본 슬픔에 뒤이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무자비하게 기습해온 또 하나의 커다란 슬픔이였다.

무장투쟁이 력사무대에 군복을 입은 반일인민 유격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총성이 만주의 광막한 대륙에 새로운 시대의 서곡으로 높이 울리고있던 격동적인 나날에 최창걸과 같이 충실한 전우가 희생된것은 우리 혁명을 위해서 정녕 가슴아픈 손실이 아닐수 없었다.

차광수도 내옆에 앉아 폭양속에 시들어가는

풀밭을 눈물로 적시고있었다.

나는 최창걸의 유가족들을 만나고싶어 부대를 데리고 고산자로 향하였다. 최창걸의 부인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사내아이와 시동생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 부인이 참으로 강의한 녀자였다. 그 녀자는 우리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편의 소원이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우는것이였는데 그 남편을 대신하여 자기가 싸울수 있도록 유격대에 받아들라고 청원하였다.

우리는 예정을 바꾸어 유가족들의 곁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부대가 고산자마을을 떠날 때 최창걸의 미망인은 멀리까지 우리를 따라나와 배려주었다.

나는 무슨 말로 녀인을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이를 안아들고 그 애의 불을 다독여주었다. 이가 두개밖에 나오지 않은 사내애는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아이는 나의 얼굴을 만지면서 《아빠》, 《아빠》 하였다. 그 광경을 보고 애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였다. 나도 눈굽이 저러올라 아이의 불에 불을 대고 한참동안 고산자마을쪽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주머니, 이 애를 잘 키워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합시다!》

나는 목이 메여 그보다 더 긴 말을 할수가 없었다.

부대가 고산자를 떠나서 5리쯤 왔을 때 우리가 너무도 침통해하는것을 보고 김일룡은 최창걸을 추모하여 조총을 올리자고 제기하였다. 조총이라도 올리면 우리의 기분이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을 한 모양이였다. 역시 풍상

고초를 많이 겪어본 김일룡의 속마음이 웅심깊은데가 있었다.

《소문만 듣고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싶지 않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조총부터 올리겠습니까.》

몽강을 거쳐 량강구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무송지방에 은거하고있던 20명가량의 독립군이 70~80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무장부대와 합세하여 우리 부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것이였다. 이 음모의 기안자가 바로 국민부산하의 독립군이였다. 그들은 몽강에서부터 량강구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로정을 내탐한 다음 중국인반일부대에 우리 부대가 공산군주력부대라는것을 련락하였다. 독립군은 중국인반일부대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가 통과하게 될 마을을 미리 차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것은 량강구에 있는 공청원들이였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조직원들과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가 량강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이 내막을 알려주었다.

유격대원들속에서 국민부테로분자들을 타도하고 최창걸의 복수를 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것이 바로 그때였다. 류하의 청년들이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을 요정내고 남만청총대회때 괴모산골짜기에서 학살된 6월사의 원쑤, 최창걸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만 하여도 나와 목소리를 합쳐 그들을 달래던 동무들까지 지휘부로 찾아와 우리의 자제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번 싸움을 본때있게 하여 버릇을 떼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버릇을 떼준다는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

결될 문제가 아니였다. 우선 력량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는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제일 난처한것은 상대가 적아닌 적이라는것이였다. 항일구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대들끼리 서로 맞총질을 한다는것은 사실상 1930년대초기의 혼란된 시국만이 만들어낼수 있는 일종의 만화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가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동쪽상잔을 한다는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중국인반일부대와 독립군이 합작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공격한다는것도 괴이한 일이였다.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갈라질것이였다. 하지만 이런 류의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다도덕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였다. 승자의 목에 걸어줄 월계관도 있을수 없거니와 패자의 희생을 동정할 눈물도 있을수가 없었다.

중국인무장부대를 잘못 건드려놓으면 우리의 활동에 수습할수 없는 난판이 조성될수 있었다.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은 깨어지고 우리는 다시 남의 집 뒤골방에서 무기소제나 하며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립군부대를 치는것도 그만 못지 않은 악후과를 낳을수 있었다. 공산군부대가 독립군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하고 맹대할것이였다. 반공분자들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혈뜰을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총구를 마주대고 혈전을 벌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독립군은 송화강건너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비하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로

-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기사장 조현일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모든 건축물들을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조현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륭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 바로 이것이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고 우리 당이 밝혀준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이다.

기자: 이를 실현하자면 건축설계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조현일: 그렇다. 건축설계는 건설의 선행공정이고 작전도이다. 건축설계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과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건설 그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사업으로 되고있으며 건축물이 조형화, 예술화, 다기능화, 지능화되고있는 오늘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는 선편리성, 선미학적성, 선하부구조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건축설계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과학자들은 건설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건축정보모형화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이들은 건축정보모형화기준작성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자료들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설계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추진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리용하는 녹색건축을 적극 장려해나가기 위한 연구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는 령탄소, 령에너지기건물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많은 힘을 넣고있다.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들이 우리 인민들의 미감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특색있게 건설될수 있는것은 건축설계의 과학화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기자: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조현일: 시공은 건설의 기본공정이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서는 모든 건축물은 그 하나하나가 다 후손들이 두고두고 자부할 로동당시대의 상징으로 된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마땅히 그 질에 있어서 최상의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자들이 그 어떤 시공과제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는 기능과 급수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마감시공을 잘 할수 있는 기능공대렬을 늘이며 현장기술학습과 기술전습 등을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이와 함께 시공을 전문화하고 건설설비와 기공구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선진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기자: 건재의 국산화문제도 과학기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조현일: 그렇다. 건재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과학자들은 건재생산에서 필수적인 중요 원료부터 국산화하는 원칙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있다. 천리마타일공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들을 거의 국내에서 해결하고있다. 대표적으로 타일생산에서 중요한 원료인 유약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타일공업을 철저히 주체가 선 공업으로 발전시킬 각오밑에 공장에서는 내벽타일생산에 드는 많은 원료들중에서도 유약부터 국산화하는데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보다 든든해진 배심과 진취력

으로 색감과 첨가제를 비롯한 다른 원료들을 국산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고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선진수준의 콘크리트바닥연마시공기술을 개발하여 널리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바닥마감재료에 비하여 시공원가를 낮추면서도 운영과정의 보수비용 등을 극력 줄일수 있게 하였다.

오늘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타일과 석재, 유리와 수지건재는 물론 보온재와 외장재, 방수재를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건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설계와 시공, 건재를 건설의 3대요소로 틀어쥐고 다같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이 훌륭한 건축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비결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건설의 대변영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새로운 평양변영기를 자랑하며 잠들줄 모르는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들





수도의 거리에 펼쳐진 원림경관들

수도의 곳곳마다에 특색있는 원림경관들이 펼쳐졌다. 관상용가치가 크면서도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들로 색채를 형성하기도 하고 구획별로 나뉘어 곱, 토끼를 비롯한 여러가지 모양을 형성한 식물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영철
김성철



러명거리에 피어난 화초들의 일부



만수대분수화초공원에서



지형과 식물의 배합

여러가지 **관상적효과**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동평양제1중학교는 지난 시기 국제수학올림픽 우승자들을 키워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진행된 제1중학교학생들의 학과경연과 속독경연, 외국어 회화경연 등에서 수많은 우승자들을 배출한 실력 있는 학교이다.

학교가 거둔 성과의 비결은 이곳 교육자들이 인재형의 교육자만이 인재형의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지난 기간 자질향상과 실력제고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데 있다.

그들의 목표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자답게 전공과목의 교육내용에 완전히 정통하는 것은 물론 선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보다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일꾼들은 교육내용과 방법개선에 주되는 힘을 넣고 이 사업에서 모범적인 교원들로 매달 2회이상의 보여주기교수를 조직하는 한편 임의의 시각에 예고없는 교수참관을 통한 교수경연을 특색있게 조직하고 있다.

교수준비와 교수내용, 교수방법과 교수효과, 교수수법 등 여러 항목의 기준을 정하고 채점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수경연의 실효는 매우 크다.

물리강좌의 모든 교원들이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자질향상을 목적지향성있게 하는 것과 함께 교수토론을 진행해도 언제나 새로운 안을 내놓고 논의과정을 통해 실무적자질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강좌에서는 국제적인 물리올림픽경연문제



들에 준하여 시험문제들을 출제하고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각도에서 풀이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사고하고 올바른 풀이방법을 선택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원리적인식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물리학의 선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집들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보기술강좌의 교원들은 로봇교육과 관련한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를 자체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 있다.

학생들이 로봇의 개념과 응용분야,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수학, 물리학, 정보기술, 전자공학 등 여러 과목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교원들은 사색과 탐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학생들이 로봇들의 동작수행을 위한 프

로그람들을 작성해보면서 실천실기능력을 높여나가는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데도 많은 힘을 들이였다.

그 과정에 강좌의 적지 않은 교원들이 실리있고 우월한 로봇교육방법들을 탐구하여 교수실천에 도입하였으며 학생들은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로봇들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성과는 수학강좌, 생화학강좌, 다매체연구실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일고있는 실력제고, 자질향상의 경쟁열풍은 적지 않은 교원들을 유능한 교원들로 되게 하고 있으며 그들이 창조한 선진적인 교수방법들은 여러 교수경연들마다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전국에 일반화되고 있다.

학교는 국가적인 정보화시범단위로 선정되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동평양제1중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 교육내용과 방법개선에 주되는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머니처럼 한생을 살립니다

어머니날을 맞으며 나와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가정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양하게 하루일정을 짜는것과 함께 어머니에게 새옷과 돋보기를 마련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한생을 조기음악교육에 바쳐가고있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느라 어머니의 지나온 나날이 돌이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에서 교양원으로 일하기 시작한것은 주체77(1988)년부터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음악의 기초인 청음, 시창을 배워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이들의 개성에 맞게 교육을 주느라 밤늦게 집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일이 바빠 한달에 한번정도 들어오다니 우리 집에서는 나보다 3살우인 누나가 집살림을 맡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체육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어머니는 수업을 해야 한다면서 누나와 나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는 유치원에 나갔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나와 누나는 책가방을 메고 쓸쓸한 마음으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가니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울적한 기분으로 나는 사람찾기경기에 나갔습니다. 원래 달리기를 잘했던 나는 맨 앞장에서 뛰어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쪽지를 펼쳐보고 더 필수가 없었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니와 함께 뛰라는 글이 써여져있었던것입니다. 뒤따르던 동무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을 찾는다 야단법석이건만 나만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습니다. 나의 모양이 보기 딱했던지 누나가 뛰어왔습니다. 나는 누나의 손을 잡고 냅다 달렸습니다. 결국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섰지만 경기 규정상 어머니와 함께 달리지 못한것으로 하여 우

승하지 못하였습니다. 퇴근후 이날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서 들은 어머니는 못내 가슴아파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날 어머니는 음악적감수성이 뛰어난 어린이의 청음지도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나와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어제는 정말 안됐다고, 너희들이 크면 어머니를 리해할 때가 있을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치원생들의 청음, 시창지도는 별로 눈에 띄이지 않지만 집짓는것에 비유하면 기초를 잘 다지는것과 같다고, 든든한 기초우에만이 고층건물을 세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차있는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조기 음악교육에 더욱 심혈을 쏟아부

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머니는 많은 음악신동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요예술단체에서 활약하는 이름있는 성악가수, 연주가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TV에서 그들의 공연을 볼 때면 제일 기뻐하였습니다.

35년세월 어머니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나라의 조기 음악교육발전에 묵묵히 자신을 바쳐왔습니다.

그 나날 어머니는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었으며 주체105(2016)년 11월에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었지만 어머니는 오늘도 젊은 시절의 모습그대로 일하고있습니다.

림윤철



림윤철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동 51인민반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자세로 조기음악교육발전에 자신을 바쳐가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시려는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음악적재능개발에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리혜옥녀성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박재룡

기체침탄실현의 개척자

연구사업에 임할 때면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힘과 정열이 용솟음친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 박재룡은 올해 80살이다.

고령의 나이이지만 그는 연구사업에서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고있다.

지난 시기 도가니없는 침탄로와 침탄공정확립을 비롯한 여러건의 발명으로 나라에 리득을 준 그는 많은 새 기술성과도입증도 받았다.

최근시기에는 젊은 연구사들과 함께 공작기계들의 공구수명을 늘이는 미세결정질분말고속도강을 개발하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구소의 많은 연구사들은 지칠줄 모르는 그의 열정을 두고 탄복해마지 않고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50여년세월 그는 기계공학분야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것을 자기의 연구과제로 삼고 줄달음쳐왔다.

처음 그가 관심을 돌린것은 금속재료들에 대한 기체침탄(표면에 탄소를 입혀 마모되지 않게 하는것.)이었다.

당시 보편화되고있던 고체침탄방법은 침탄시간이 오래면서도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부족점이 있었다.

반면에 기체침탄은 그 수명을 늘일수 있을뿐 아니라 많은 자금도 절약할수 있었다.

그가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 국내기계공학부문에서 기체침탄은 초행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문헌자료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시간을 훨씬 단축하는 적주식기체침탄방법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형식의 침탄로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금성프락포르공장으로 나가 그곳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치였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내밀어 그는 끝내 침탄로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가 내놓은 적주식기체침탄방법은 프락포르치차의 수명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전국의 여러 공장들에 일반화되었다.

《새로운 적주제에 의한 기체침탄 및 분위기 열처리에 대한 연구》는 후날 그의 박사논문으로 되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고뇌의 흔적은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들에도 새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열처리공정을 확립한것은 물론 철편용수철의 질도 개선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고심어린 연구성과들이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낼 때면 그는 더없는 기쁨을 찾았다.

그렇수록 지나온 날이 감회깊이 돌이켜졌다.

일본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그의 꿈은 덩지가 크고 마모가 되지 않는 기계를 만드는것이였다.

그 꿈은 그가 조국의 품에 안겨 실현될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꿈을 꽃피워준 조국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싶었다.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곳에 스스로 자기 위치를 정하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나날 참고자료와 책들을 얼마나 보고 또 보았는지 집의 책장에 보풀이 일지 않은 책들과 사진들이 없다고 한다.

이런 탐구자세는 수십년세월 변함이 없었다.



박재룡은 세세대 연구사들에게 지난 시기 연구사업과정에 쌓은 경험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있다.

그는 기계공학분야의 수많은 참고서를 집필하여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으며 많은 박사들도 키워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새로 일떠섰을 때에는 5칸짜리 살림집도 배정해주었다. 그리고 기계공학분야에서 이룩한 공로를 헤아려 그를 국가적인 대회들에도 불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그에게 생일상도 보내주시였다.

그의 집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모셔져있다.

공훈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연구사업에 임할 때면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힘과 정열이 용솟음친다. 무슨 일을 하든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리파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아들과 학생인 손자가 그의 뒤를 이어가고있다.



해외에 살고있는 친척들의 소식이 실린 《금수강산》잡지를 보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과일군을 찾아서



조국땅 방방곡곡을 편답하며 해외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얼마전 미국에서 살고있는 김지철동포의 고향인 황해남도 과일군에로 향해졌다.

20리 날바다를 가로지른 서해갑문을 지나 푸른 들을 옆에 끼고 한참동안 가느라니 눈뿌리 아득

하게 펼쳐진 과수바다가 안겨들었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곳이 바로 온 나라에 알려진 100리청춘과원이 있는 과일군이였다.

《우리 과일군은 옛날에는 바람이 세계 부는 지대라고 하여 풍천이라고 하였답니다. ...》

우리와 동행한 군의 일군이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펼쳐놓았다.

원래 송화군의 한 지역이었던 이곳은 해방 전까지 밭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락후한 농업

지대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곳에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를 꾸릴 구상을 무르익히신 때로부터 과수업발전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주체56(1967)년에는 정식 과일군으로 되었다.

명승지로 이름난 룡수포해수욕장, 천년나마 자랐다는 두그루 은행나무 등 군에 대한 자랑을 들으며 우리가 이른 곳은 신대과수농장이였다.

농장의 전망대에 오르니 무연하게 펼쳐진 과





과일군에 자리잡고있는 과수 연구소에서는 우량품종연구와 과일나무재배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수밭들과 꽃동산마냥 아름다운 선경마을이 안겨왔다.

과수밭에서는 사과수확이 한창이었다. 한알의 사과라도 상할세라 정성을 기울이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니 열매따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바람결에 사과나무잎들이 흐느적거리는 포전에 들어서니 누구인가 사과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있었다. 신대과수농장 경리 김춘남이었는데 그는 수십년간 과일농사를 해오면서 사람들로부러 《과일박사》라고 불리우고있다는것이였다. 올해에도 사과가 수백알 달린 나무들이 적지 않다며 그는 과수작업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말해주

었다. 과수작업에서는 덜 바쁜 계절이 따로 없다. 밀거름주기며 꽃가루묻혀주기, 농약뿌리기, 김매기, 열매썩기, 가지자르기...

그의 이야기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비껴있었다.

그들이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였는가 하는것은 가지마다 주렁진 사과들이 다 말해주는듯싶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뉘엿뉘엿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폈소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오
 ...

저도모르게 마음이 끌려 흥얼흥얼 따라부르느라니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작곡한 인민예술가 김옥성이 바로 과일군출신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만약 그가 오늘날 자기 고향에 이렇듯 멋있는 과일바다, 사회주의무릉도원이 펼쳐진 모습을 보았다면 또 어떤 훌륭한 명곡을 지었겠는가.

다음날 우리는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과수연구소를 향하여 길을 떠

났다. 도시에서는 느낄수 없는 농촌마을특유의 유정한 정서에 취하여 얼마간 걷느라니 산뜻한 연구소건물이 나왔다.

우리와 만난 신총국소장은 최근년간 지속되는 이상기후현상은 과일생산에도 지장을 주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에서는 우량품종을 연구하고 선진적인 재배관리와 시비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고 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인양 수십정보나 되는 연구소의 시험포전들에서는 새 품종의 과일들이 가지마다 주렁져 사과향기를 풍기였다.

이곳뿐만이 아닌 송곡과 염전과수농장을 비롯한 과일군의 여러 과수농장들에 가보아도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고향을 더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꾸려가려는 군주민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조선서해기슭에 펼쳐진 100리청춘과원의 과일향기.

그것은 과일생산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소중한 땀방울에 의해 그토록 그윽한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김지철동포도 오늘의 과일군을 찾는다면 변모된 고향의 모습보다 고향사람들의 아름다운 지향과 근로정신에 더 탄복하여마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과일군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과일군에 새로 건설된 농촌살림집의 일부



과일군 은택원

희망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과일군 과일유치원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전호에서 계속)

한집안식솔로 안아주는 품

지금도 저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노라면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에 오는것은 본가집에 오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자주 오라고 당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깊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가집!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있어서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계시는 본가집이었습니다.

제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지금으로부터 33년전인 주체79(1990)년 9월중순 어느날이었습니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우리 일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퍼그나 늦은저녁이었습니다.

한달음에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 저희들은 그만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저희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식사를 뒤로 미루신채 우리를 기다리고계시었던것입니다.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쩔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먼길에 수고가 많았다고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식탁으로 이끄시었습니다.

아무런 격식과 틀도 없이 우리들을 한집안식구처럼 대해주시며 저희들앞에 손수 음식그릇까

지 놓아주신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 천금같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들과 또다시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깊은 눈길로 저희들을 둘러보시며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본가집에 갈 때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국에 올 때에는 부인과 자식들도 데리고 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저희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시여 가족들까지 불러주시는 그 사랑은 정녕 우리 총련일군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운명, 아니 모든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다 책임지신 친아버지의 가장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집안일을 의논하듯 흥금을 터놓으시고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저는 아버지의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가슴뿌듯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친아버지 사랑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실 때마다 책임부의장에게 있어서 조국은 고향이라고, 동무가 자기 고향이 평양이고 장군님의 품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조국체류중에 생일을 맞은 저를 저택에 부르시여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찾아온 자식에게 갖가지 음식을 차려주는 아버지

마냥 가정에서 손수 떡까지 쳐주신 장군님은 진정 자애깊으신 위대한 아버지이시였고 장군님께서는 평양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달려가 안기고싶은 본가집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은 그날부터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만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안으며 우리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있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행복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포자녀들을 위해 재배 산삼을 수만뿌리나 보내주신 이야기며 일군들의 건강을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조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렬차를 편성해주도록 하신 이야기 등 멀리 떨어져 사는 이역의 자식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특전특혜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행복한 날보다 어려운 때에 더 잘 알게 되는 법입니다.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변함없이 돌려진 크나큰 사랑에서 저희들은 피와 살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때와 똑같이 해마다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며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자금들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이역의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고 정깊은 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있었습니다.

정녕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집안식솔로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육친적인 사랑은 열도와 깊이에 있어서 이 세상 제일 뜨겁고 웅심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상 식

검은모루유적

주체55(1966)년부터 주체57(1968)년사이에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검은모루)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의 동굴유적이 발견되었다.

검은모루란 흑우라는 한자말로 된 마을의 원래 이름이다.

유적은 상원읍에서 서북쪽으로 3 000m정도 떨어진 검은모루부락동쪽에 있는 우물동이라는 석암언덕의 남쪽 비탈진 기슭에서부터 15~17m정도 높은 곳에 있다. 길이 약 30m, 너비 약 2.5m, 높이 2m 정도의 좁고 긴 동굴유적이다.

유적에서는 원시인들이 쓰던 타제석기와 함께 수십종의 짐승뼈화석이 발견되었다.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매우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갓 형성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로동활동의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물들이었다.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석기의 종류에는 주먹도끼모양석기, 제형석기, 뾰족끝석기, 쪼각석기 등이 있다. 석기들은 원시인들이 처음으로 로동도구를 만들어쓰던 시기의것이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수많은 포유동물의 화석들이 나왔다. 유적에서는 29종의 동물화석이 알려졌다. 그가운데는 쥐와 같이 매우 작은 짐승의 뼈가 있는가 하면 코끼리와 같이 굉장히 큰 짐승의 뼈도 있다. 29종의 동물화석가운데서 17종에 해당되는 화석은 이미 지나간 지질시대에 존재하다가 사멸된 종이다.

검은모루유적의 동물상은 지금으로부터 100만년 전에 상원일대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살고 있었으며 당시 상원일대의 기후도 지금보다 훨씬 더웠고 습기가 많았으며 수풀이 무성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원시무리를 이루고 생활하였다. 그들은 석기를 가지고 나무를 찍거나 다듬어 곤봉과 같은 도구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로동도구들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당시 상원일대에 흔하던 나무열매를 따고 풀뿌리를 캐어 먹었으며 짐승들도 잡아먹었다.

인류사회의 려명기에 해당되는 검은모루유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것을 실증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구석기시대전기문화 특히 원시인들의 생활을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 * *

조선봉건왕조 (1)

의 암 리

조선봉건왕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존속해온 우리 나라 역사에서 마지막봉건국가였다.

조선봉건왕조의 역사는 크게 중세시기(1392년-19세기 60년대)와 근대시기(19세기 60년대-1910년)로 나누며 중세시기는 임진조국전쟁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조선봉건왕조 중세시기전반기는 건국초기로부터 임진조국전쟁이 조선인민의 승리로 결속된 16세기까지를 포괄한다.

1388년 배신적인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일파는 왕권탈취를 위한 제반조건을 마련한데 기초하여 1392년 7월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웠다. 그리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오늘의 조선 또는 고대국가인 조선(고조선)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조선봉건왕조라고 부르고있다.

왕권을 탈취한 이성계일파는 1394년 10월 개경(개성)으로부터 한양(서울)으로 수도를 옮기었다. 그리고 중앙집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봉건통치체계를 재편성하고 나라의 정치경제적, 법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중앙에 의정부와 6조(리조, 호조, 레조, 병조, 형조, 공조), 승정원과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를 비롯한 80여개의 관청을 설치하고 전국을 8도(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로 구분하였고 도 밑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 밑에 말단단위인 면과 리를 두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를 확립하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된 군사체계를 두고 중앙군은 5위(의흥위, 통양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로, 지방군은 진관제에 기초한 룡군과 수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의 통신연락체로서 봉수제도(5개의 주요간선)와 역참제도(41개의 역도, 502개의 역참)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봉건왕조는 나라의 령토완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날로 가증되는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여 1419년 6월중순 쓰시마원정을 단행하였다. 227척의 함선과 1만 7 285명의 군사로 편성된 원정군은 3군도 제찰사 리종무의 지휘밑에 거제도를 출발하여 불의에 쓰시마에 상륙하였다. 이에 질겁한 적들이 산속으로 도망치자 원정군은 쓰시마령주에게 투항할것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포구들을 살살이 수색하여 적선 124척을 소각하고 34척을 로획하였다. 그리고 적들이 도사리고있던 1 939채의 집을 불살라버리었으며 154명의 적을 살상, 포로하였다. 조선함대의 불의습격과 포위섬멸전에 기가 꺾인데다가 식량난까지 겹쳐 궁지에 빠진 적들은 드디어 항복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또한 외적의 거듭되는 침입을 쳐물리치고 북방령토의 완정을 위하여 압록강상류에 4군을, 두만강하류일대에 6진을 설치하여 행정군사단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 읍성과 진, 보들을 많이 건설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행정들도 쌓았으며 많은 주민들을 이주시켜 외적의 침입을 막으면서 그 지역을 개척하게 하였다.

한편 이 시기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1443년 12월(양력 1444년 1월) 조선민족의 고유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고려시기의 금속활자기술과 조판기술을 더욱 혁신시켜 1436년 세계최초의 연활자(병진자)를 발명하여 출판인쇄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측우기가 발명되고 혼천의, 자격루와 같은 우수한 기구들이 만들어졌으며 철갑선인 거북선과 비격진천뢰, 비거와 같은 세계최초의 우수한 무장장비들이 창안제작되어 임진조국전쟁을 비롯한 반침략투쟁들에서 위력을 떨치었다.

이 시기에도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1426년 한성방화투쟁과 1428년 신백정폭동, 1446년 대성산농민폭동, 1467년 함길도농민전쟁, 16세기중엽의 립격정농민폭동 등이 일어났다.

먼 옛날 모란봉이 바라보이는 대동강기슭에 마음이 착하고 부모공대 잘하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있었는데 그만 아버지도 중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뜨거운 해벌이 내려쬐이는 한 낮에 모란봉솔밭에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훌훌 벗어놓고 대동강물에 뛰어들며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선녀옷 하나가 솔밭길 너편에 있던 총각가까이로 날아왔다.

총각은 강가의 큰 바위우에 떨어진 그 날개옷을 주어가지고 선녀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대동강에서 즐기던 선녀들은 총각이 오는것을 보고는 급히 소나무숲속으로 가서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날개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만은 안타까이 자기 날개옷을 찾다가 벼들숲에 몸을 가리우고 울고있었다.

총각은 선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에 선녀의 날개옷을 놓고 돌아서서 말하였다.

《옷이 여기 있으니 울지 말고 어서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오.》

선녀는 의문과 고마움에 섞인 눈길로 총각을 바라보았다.

《달리 생각마시오. 아까 강바람에 옷이 날려갔기에 지금 막 가져오는 길ियो.》라고 총각은 말하였다. 그제서야 선녀는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보답하리까.》라고 하며 송구스러워하였다.

총각은 보답은 무슨 보답이나고 하며 어서 이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선녀는 무엇이든지 부탁하라고 총각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기가 다음번에 올 때 날개옷을 한벌 가져오겠으니 그것을 입고 하늘나라구경을 하자고 하였다. 총각은 고마웠으나 집에 늙은 할아버지가 앓고있어 갈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선녀는 3 000년만에 한알씩 열리는 하늘복숭아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며칠후 그 선녀가 가져다준 하늘복숭아를 먹고 총각의 아버지는 병을 깨끗이 털고일어났다.

그때부터 착한 마음씨덕에 하늘복숭아를 얻어 아버지의 중병을 고친 총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선녀의 날개옷이 날아와 떨어진 바위를 《의암》(오늘의 대동강구역 의암동)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살던 마을을 《의암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

오래전부터 침략의 기회를 노려오던 일본사무라이들은 1592년 4월 근 20만의 대군으로 조선봉건왕조를 침공하였다. 전쟁초기 통치배들의 무능력과 허술한 국방력으로 하여 령토의 많은 부분이 침략군의 강점하에 들어가게 되고 봉건정부가 피난가는 등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었지만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은 룡지와 바다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리순신장군이 지휘한 조선수군은 1592년 5월초에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데 이어 여러 해전들에서 련속 전과를 확대하였다. 특히 한산도해전에서 큰 승리(한산대첩)를 거둠으로써 적들의 수륙병진계획을 완전히 파탄시키었다. 한편 룡지에

서도 경상도 의령에서 광재우의병대가 첫 봉화를 올린데 이어 이르는 곳마다에서 의병대가 조직되고 침략자들에게 강한 타격을 주었으며 관군도 령량을 수습하고 의병들과 련합하여 진주성방어전투(진주대첩)와 행주산성방어전투(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인 반타격전으로 적들을 경상도 남해안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1598년 11월에 벌어진 로량해전은 임진조국전쟁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한 해전이였다. 이 해전에서 리순신장군이 지휘한 조선수군은 적선 200여척을 격침, 격파하고 근 2만명의 적들을 소멸하는 큰 전과를 이룩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차광혁

김두량과 조선화 《소몰이군》

오늘도 조선미술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림 《소몰이군》은 18세기전반기에 활동한 화가 김두량의 작품이다.

김두량은 어려서부터 도화서 화원이었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게서 그림그리는 법을 배웠다.

김두량은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여러 분야에서 실사구시의 사조가 대두하던 시기에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는 농민들의 생활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은 화가였다.

그의 호가 남리로 되게 되는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 21대왕인 영조는 그림을 몹시 좋아하였다.

어느날 외국에서 보내온 그림을 감상하던 영조는 지금 화공으로서 누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가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레조판서가 현재 도화서에 있는 화원 으로서는 김두량이 제일 잘 그린다고 아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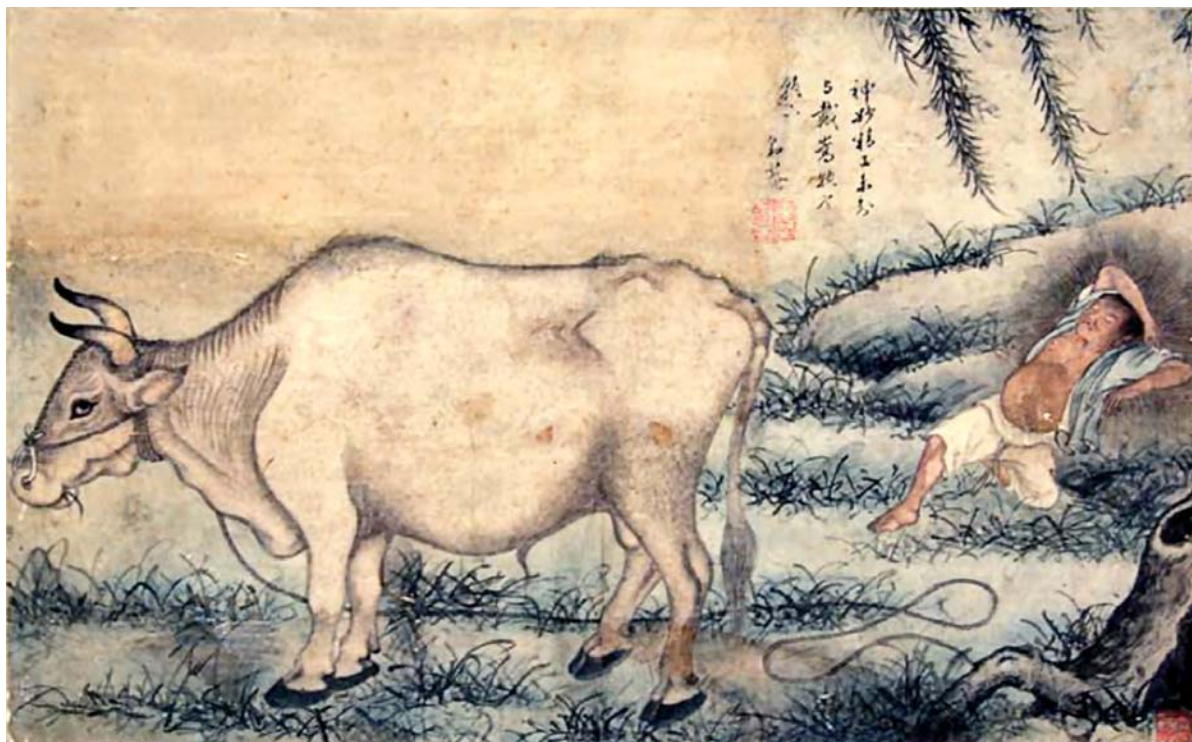
영조는 그 화공을 불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레조판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곧 사람을 시켜 김두량을 입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김두량은 영조앞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림의 주제는 한 선비가 꿈을 꾸면서 룡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상화였다. 주제는 비록 환상적인것이기기는 하지만 선비의 모습은 현실에서 볼수 있는 모습그대로이며 룡의 모습도 마치 살아있는듯하였다.

그림을 보고난 영조는 김두량을 대견하게 바라 보면서 호를 어떻게 부르는가고 물었다. 당시 문



《소몰이군》 31×51cm 종이·담채

인들속에서는 이름보다도 호를 부르는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있었다. 김두량이 대답을 못하자 영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남리》라고 부르도록 하자고 일렀다.

이것은 김두량이 그만큼 그림을 잘 그려 영조왕을 크게 감탄시켰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그만큼 김두량은 그림에서 뛰어난 묘기를 보여준 화가였다.

그림 《소몰이군》은 그가 지닌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과 향토애를 그대로 함축한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림에서는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곤해서 소를 나무에 매어놓고 그늘밑에서 코를 골며 자는 농민의 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어있다. 당시 우리나라 농촌생활의 일단을 감명깊게 펼쳐낸 이 그림은 화면의 한가운데에 커다란 황소가 그려져있고 그 오른쪽 한켠에는 풀밭에 누워 잠든 농민이 그려져있다.

여름철의 그늘밑에서 낮잠에 든 농민의 형상은 소박하면서도 꾸밈없이 형상되었다. 고된 일에 지치고 거뭇거뭇하게 탄 얼굴, 옷깃을 풀어헤쳐 드러낸 배꼽, 더부룩한 머리는 당시 봉건사회농민의 모습그대로이다.

소몰이군의 이러한 형상은 고된 노동속에서도 량만적으로 살며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들의 성격과 생활을 해학적으로 잘 펼쳐보여주고있다. 또한 힘겨운 일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는 소의 모습 역시 온순하고 힘이 센 우리 나라 부림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다.

구수한 흠냄새가 풍기는듯한 주위환경묘사는 주인공과 소의 형상을 잘 안받침해주고있어 마치도 곤하게 자고있는 농민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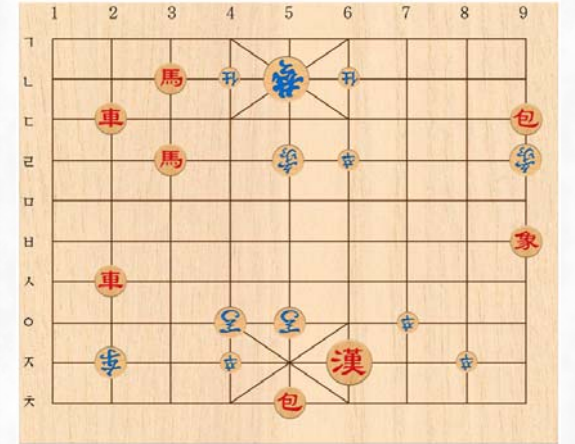
작품은 구도가 짜여져있으며 묘사령역에서도 뛰어나게 우수한 작품이다.

김두량은 그림 《사계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농촌풍경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이와 같이 김두량은 18세기전반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화가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나라 회화예술의 주제령역을 확대하고 민족미술을 빛내이는데 기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장기수풀이 (11)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뜬 궁은 명이 짧다

궁이 포선(ㄷ형 또는 ㄹ형)에 놓이게 되면 거의 나 지는 실례가 많은데로부터 나온 말이다.

궁이 뜨면 방어하기에 매우 불리하고 상대방은 공격에서 결정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데로부터 궁을 띄워놓으면 절반 이겼다고도 하며 뜬 궁의 불편함을 궁쳐지기 또는 불쳐지기라고도 비유하고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궁을 어떻게 보위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교훈적인 말이다.

장기수풀이 (10)에 대한 답

- ㄴ7병 ㄴ6, ㄴ5사 ㄴ6, ㄷ6포르6,
 - ㄴ6사 ㄴ5, ㄷ7병 ㄷ6, ㄴ5사 ㄴ6,
 - ㄷ5병 ㄴ5, ㄴ4사 ㄴ5, ㄷ6병 ㄷ5,
 - ㄴ5사 ㄷ6, ㄷ2포 ㄷ6, ㄴ6사 ㄴ5,
 - ㄷ6포 ㄱ4, ㄱ6궁 ㄴ6, ㄷ5병 ㄷ6,
- 장훈

민족의 향취넘치는 연백농악무



연백농악무에 리용되는 악기들의 일부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로동 생활과정에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창조하고 발전 풍부화시켜왔습니다. 그중에는 민속무용 《연백농악무》도 있습니다.

연백농악무에 대한 리해를 깊이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 피바다가극단 안무실장 공훈예술가 김인철을 만났습니다. 조국의 민족무용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그는 도서 《민족문화유산 연백농악무》를 집필하였습니다.

《연백농악무는 우리 나라 주요곡창지대인 연백벌의 특성으로부터 그 어느 지역에 비해 농악무가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이런데로부터 조선의 농악무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민속무용으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면서 김인철실장은 우리에게 연백농악무의 유래와 그 예술적특징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연백농악무의 발생기원은 년도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그 시원은 농경가무의 발전과 일치시켜 보아야 할것입니다. 옛날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은 해마다 풍작을 바라거

나 경축하는 농경의례를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그때마다 민족적색채가 짙은 선물과 장단, 춤가락으로 일관된 이채로운 농경가무를 펼치곤 하였습니다. 농경의례때마다 진행되던 농경가무는 이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농악무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악무는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 농악에 맞추어 추어온 민간무용으로서 민족적색채가 짙으며 락천적이고 흥미있는 대중무용입니다.

근대시기에 농악무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속에서 그 예술적형상이 보다 발전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는 농악경연도 널리 진행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연백벌지방은 농악경연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연백벌지방에서는 농악경연을 가리켜 일명 《연백농무대회》라고 하였습니다.

음력으로 칠월보름이면 진행되곤 하는 이 경연을 통하여 농민들은 농악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농악장단에 맞추어 상모를 채치있게 돌리면서 자기들의 로동생활을 흥겨운 춤과 노래에 담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연백농악무의 기본음악형상 수단인 징반주의 12채가락이 체계화되었고 이로



주제43 (1954)년 7월 연백벌농민들이 출연한 농악무의 한 장면



연백벌의 농업근로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에도 출연하였다.



치곤래 무동놀이의 한 장면



연백두레 무동놀이의 한 장면



마당놀이의 한 장면



록새비놀이의 한 장면

하여 조선장단의 건드리진 흥취를 뚜렷이 살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백농악무의 고유한 특징은 군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영농절기에 따르는 흥겹고 개성있는 춤가락들로 농악무를 구성하고있는것입니다.

연백농악무는 모내기과 김매기를 형상한 춤,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형상한 춤 등 매 춤들이 영농절기를 반영하면서도 춤가락을 생활의 논리에 맞게 구성하고있습니다.

실례로 벼가을춤가락은 신바람나게 벼를 베어나가는 동작과 미처 베지 못한 뒤쪽의 벼를 말끔히 베여가는 작업모습을 몸통을 돌리는 동작과 벼를 베는 동작을 배합하여 형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김을 매는 춤동작도 김을 매다가 이마에 손을 얹고 앞을 내다보는 동작을 하거나 작업과정에 농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동작들을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있습니다.

연백농악무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상모춤입니다.

연백농악무의 상모춤은 우리 나라 상모춤들가운데서 기법이 다양하고 부모의 길이가 긴것으로 유명합니다. 장쾌한 음악선률에 맞추어 열두발 또는 그이상의 상모가 타래치듯 돌아가는 속에 소상모, 석줄상모, 겹줄상모를 비롯한 특색있는 상모장끼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모습은 연백농악무의 예술적형상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지난 시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에 출연하여 관중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킨 60발상모도 연백농악무의 12발상모에서 기원된것입니다.

조선인민의 락천적인 생활감정과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활달하고 기백있는 농악무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는 상모춤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서 창조된 연백농악무의 춤동작들과 춤구성수법, 독특한 춤구도와 12채가락, 상모기법들은 그 예술적형상에 있어서 자랑할만한 민족의 재보입니다.

민속무용 《연백농악무》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피바다가극단과 같은 이름있는 예술단체의 안무가, 창작가들에 의해 그 매력이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피바다가극단 안무실장 공훈예술가 김인철은 30여년간의 노력끝에 연백농민들이 세기를 이어오며 로동속에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연백농악무를 발굴하고 그 유산적가치에 대하여 해설증명하여 민족의 문화유산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철보산 (3)

- 해칠보 -

해칠보지역은 내칠보나 외칠보와는 달리 해안선의 절벽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들,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 기암절벽에 부딪쳐 물보라를 펼

치는 특이한 해안절경을 안고 있는 명승지이다. 어량단으로부터 무수단까지의 구간이 포괄된다.

이 지역은 참관로정에 따라 솔도, 탑고진, 무수단구역으로

나뉘어진다. 솔도구역에는 해칠보에서 명소로 이름난 솔도, 무지개바위, 마치 수많은 초불이 타오르는 듯한 촉석암, 섬들이 줄을 지은 듯한 와룡바위, 산호바위,

하늘의 선녀들이 솔도에 내려와 즐기다가 인적이 가 나면 자취없이 숨어버리곤 하였다는 이야기로 이채를 띠는 은선굴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난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채화봉과 오토기바위, 미인처럼 생긴 칠보암을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그가운데서 솔도는 벼랑과 바위, 우거진 솔밭, 넓은 바다와 잘 조화된 풍치아름다운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물에서 좀 떨어진 바다에 우뚝 솟은 솔도는 두개의 작은 섬으로 되어있다. 솔도중턱에는 깊숙이



솔도



무지개바위

무지개바위는 모래바위와 자갈바위우에 신생대 신제3기~제4기초 현무암이 덮인 후 바다깎기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관통문이다. 무지개바위는 그 구조와 형성연구 및 풍치적의의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해칠보의 파도



오토기바위



코끼리바위

내리뚫린 통굴이 있는데 굴은 오랜 세월 바다물의 깎임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굴로서 밑은 바다물과 통해있다.

볼수록 묘하게 생긴 무지개바위는 중평바다가에 있다. 이 무지개바위는 오래전부터 술도, 달문과 함께 해칠보의 이름난 명소로서 하늘높이 걸린 듯 한끝은 산비탈에 박고 다른 한끝은 바다에 뿌리박고있어 참으로 절경을 이룬다. 반달같은 바위구멍에 파도가 들이닥쳐 은빛물보라가 뿌려질 때에는 마치 구름우에 걸린것처럼 안겨오기도 한다.

술도구역에 있는 기암인 최석금도 마치 배낭을 멘 어른이 앞서고 아이를 업은 녀인이 뒤

따르며 그위로 강아지 한마리가 따라가는것처럼 보인다.

탐고진구역은 예로부터 어장으로 알려진 곳으로서 명태의 유래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는 곳이다.

옛날 명천땅 보춘마을에 살고있던 태씨성을 가진 한 어부가 이곳 앞바다에서 그때까지 본 일이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레 명천의 《명》자와 어부의 성 《태》자를 붙여서 명태라는 고기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것이다.

탐고진구역에는 10여그루의 소나무를 떠인 연대봉이 솟아 있고 능란한 필공의 솜씨로 만들어진 한자루의 붓파도 같은 붓(필봉)바위와 연적바위, 먹

바위, 벼루바위가 이채를 띠며 솟아있다.

이 명소들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하늘나라에서 명화가로 자칭 하던 화공이 땅나라 해동국 칠보산에 내려와 해칠보를 그림에 담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해칠보절경을 그림에 담기에는 아직 초학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자책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 10년동안 화공으로서의 기교를 더 련마한 다음 칠보산에 내려와 해칠보의 절경을 그리기로 하고 화공 도구를 남겨둔채 하늘로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붓바위와 벼루바위, 연적바위, 떡바위는 이 전설로부터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탐고진구역에는 또한 부채바위, 성벽바위, 전석근, 후석근, 코끼리바위 등으로 불리우는 명소들도 있다. 특히 바위 굴과 련결된 코끼리바위는 멀리서 보면 틀림없이 바다물에 코를 잠그고있는듯한 코끼리를 련상시키고있는데 그리하여 이곳을 《상암벼랑》이라고 한다.

해안절벽으로 특징지어지는 무수단구역에는 그 모양이 달처럼 생겨 달문으로 불리우는 명소가 있다.

달문은 칠보산지괴의 동남쪽끝에 있는 바위깎기굴로서 뒤는 높은 벼랑으로, 앞은 수십m의 깊은 바다로 되어있다

굴로 관통된 달문의 한쪽끝은 큰 바위산에 뿌리박고 다른 한쪽끝은 바다물에 잠그고있

다. 사람들은 해칠보의 관문과 같이 솟아있는 달문을 보면서 자연의 조각미에 경탄을 금치 못해한다.

달문은 예로부터 이곳을 지나가는 항행자들과 어민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풍랑을 겪을 때마다 달문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전설도 갖는 명소의 하나이다.

무수단구역은 이밖에도 단해절벽에 기암들이 겹쌓인것으로 하여 기묘한감을 주는 절승봉과 선남바위, 선녀바위, 량주바위 등으로 불리우는 명소들로 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진호
공유일



해칠보달문

우아하게 솟은 절승봉벼랑에 한 끝을 박고 다른 한끝은 바다에 잠그고있는 해칠보달문은 조국의 동해 북부에서 둘도 없는 대자연문이다.

옛날에 땅속에서 솟아나온 돌물이 식은 후 파도에 씻기우고 깎이우면서 보름달처럼 구멍났다고 하여 달문이라고 한다.

해칠보달문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